



자돈사의 온도와 사료섭취량과의 관계



정 완 태 박사 역
축산기술연구소 영양생리과

“새끼돼지의 사료섭취량은 이유 전·후 체온감소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포유 후반기에 높은 온도와의 관련이 있다.”

이유한 새끼돼지 사양관리시 널리 이용되는 최근의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1일 4회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무제한 급여하는 것보다 좋지 않다.

이 결과는 국제적으로 새로이 권장하고 있는 이유 후 제한급여를 무시하라는 것이다. 이유된 새끼돼지의 사료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은 그들의 포유돈방 내에 환경과도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돈방바닥이 콘크리트로 된 이유돈사에서 초기 공기온도가 29°C 이하에서는 안되고, 바닥의 경우는 최소한 30°C가 적당하며, 만약 보온매트가 있는 경우는 27°C까지 떨어져도 적당하다고 권장하고 있다. 이것은 이유시 체중이 21~28일령에서 약 7kg일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3주 이전에 이유할 경우에는 맞지가 않다.

이유부터 돈사의 온도는 따뜻하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온도를 낮추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새끼돼지가 돈방에 도착하기 전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유된 새끼돼지가 옮겨지기 전에 돈방을 청결하게 한 후, 각 돈방은 환기와 보온기구를 확인하고 교체하여 새로이 이유되어 올 새끼돼지들을 위하여 따뜻하고 건조하게 해두어야 한다.

새로이 이유된 새끼돼지들은 보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도착 후 첫 날에 사료섭취가 열악하여 새끼돼지의 자체 열발생량은 내려간다. 부적절한 보온과 너무 높은 환기율 등이 체온감소를 유도하는 위험요인이다. 이 때 새끼돼지들은 과식하게 되고, 체지방이 에너지 공급원으로 이용된다.

U.S. North Carolina주립대학 시험에서 이유 후 처음 1시간 동안 새끼 돼지에게 사료와 물 급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Todd See는 이 기간 동안 무제한 급여를 실시하여 그는 소량의 사료를 바닥에 뿌려주고 사료통에 항상 신선한 사료를 공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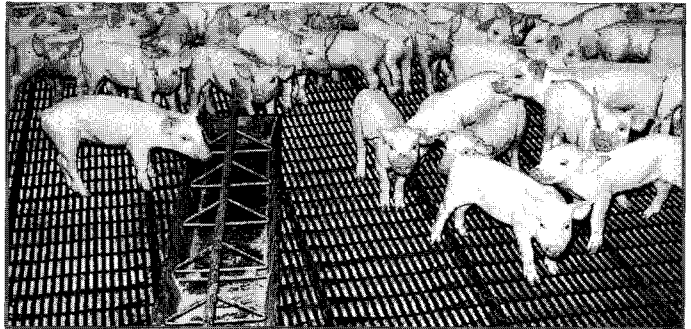
대부분의 새끼돼지들은 이유 후 36시간 이내에 사료통에 있는 사료를 섭취한다. 그러나 이유된 새끼 돼지 중의 2~4%는 개체별로 관리가 필요하다.

복부 모양을 보면 잘 먹는 새끼돼지는 복부모양이 둥근 반면, 그렇지 못한 돼지들은 여윈(수축한) 모양을 보이고, 피부가 매끈하게 윤기가 나지 않고 흐릿해 보이는가 비교해 보고, 이유한 새끼돼지의 행동을 보고 활동적인가 아니면 처져있는가, 그리고 사료조를 이용하는 것 대신 모퉁이에 떼지어 모여 있는가?를 관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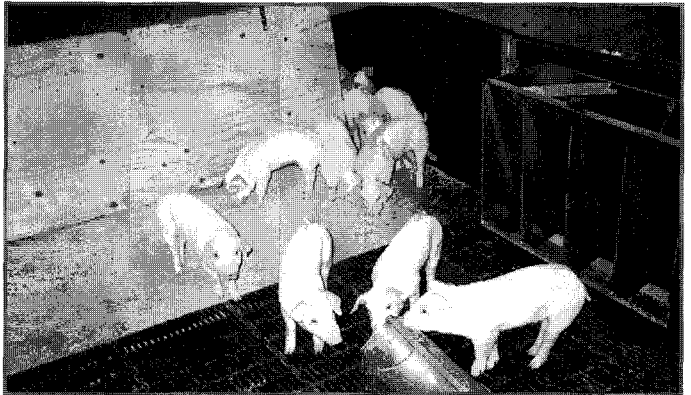
새끼돼지는 정상적으로 물을 섭취하지 못한다. 따라서 움푹 들어간 눈은 탈수되었음을 의미한다. 탈수가 의심스러우면 입의 점막막을 만져보거나 코 끝을 만져보아 평가한다.

Todd See에 의하면 또 하나의 탈수 검사방법은 다리 전반부의 뒤쪽 피부를 접어서 꼬집어 보는 것이다. 만약 접어진 부분이 즉시 펴지지 않는다면 탈수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탈수된 돼지새끼가 발견되면 부드러운 펠렛사료 한움큼과 물을 입 주위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준다. 만약 많은 돼지새끼가 발견되면, 바케스에 물과 펠렛을 섞어서 죽을 만든 후에 주사기로 12cc씩 먹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료통으로 가서 보통사료를 입으로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돈사가 추울 때는 과식할 수 있으나 알맞은 온도에서는 양질의 입물이사료를 무제한 급여하여도 적당량을 섭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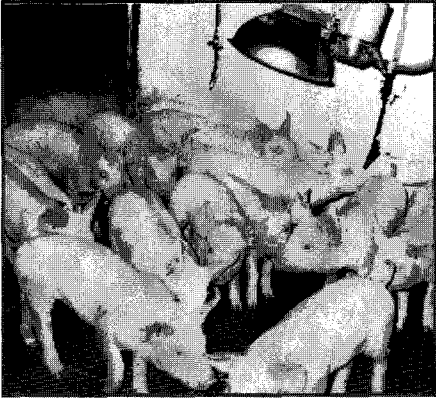
▲틈새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위치에 편평한 매트를 넣어주고 초기 사료 급여해야 한다.

잘 적응한 이유돼지들은 포유기 동안 1일 사료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첫 주에는 1일 200g, 둘째 주는 1일에 300~400g, 3주에는 1일 600g까지 증가하고, 4주에는 거의 1일 800g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사료 섭취율의 증가는 새끼돼지들이 생성하는 체열과 돈방 온도 사이의 균형을 위협할 수 있다.

사료섭취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더 많은 열이 생산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돈방 온도조절기가 온도를 합리적인 시작점으로부터 일정하게 감소시켜 조절하지 않는 한 돼지들은 곧 피부가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15년 전의 연구에 의하면 이유 3~4주 후에



▲돈사내 온도가 한냉하면 사료섭취량이 적어서 적은 양의 체열을 발생한다.

1~4주 동안 2°C가 올라가면 사료섭취율이 거의 25%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비록 그룹 크기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지만 부적당한 바닥 일부분에 돼지들이 북적거리면 사료통을 방문하는 횟수가 감소하고 돈방내 체열 방출이 증가하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 국제적으로 새로이 권장하고 있는 이유 후 제한급여를 무시하라는 것이다. 이유된 새끼돼지의 사료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은 그들의 포유돈방 내에 환경과도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돈방바닥이 콘크리트로 된 이유돈사에서 초기 공기온도가 29°C이하에서는 안되고, 바닥의 경우는 최소한 30°C가 적당하며, 만약 보온매트가 있는 경우는 27°C까지 떨어져도 적당하다고 권장하고 있다. ”

있다. 과도한 온기는 공급한 사료의 신선도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유된 새끼돼지들에게 젖은 죽 같은 사료를 공급하고 있을 때 높은 온도는 사료통 안에 남아 있는 사료의 맛이 변하게 된다. 비록 건조사료이더라도, 사료의 맛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사료통에 분말사료나 펠릿사료들이 하루만에 가득찰 것이다.

〈자료 : PIG INTERANTIONAL APRIL 2003〉 양돈

"대한양돈협회 휴대폰 시세서비스 개시"

- 가장 빠르고 정확한 대한양돈협회 시세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 연간 전화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일 당신의 휴대폰에 양돈시세가 나타납니다.

- 대상자: 양돈협회 회원 및 전국 양돈농가
- 제공내용: 일일 서울, 경남, 전국 비육돈 평균경락가격, 긴급 정보
예) 서울 2,738원 경남 2,798원 전국 2,755원
- 요금:
 - 회 원: 3만원/년(부가세 포함)
 - 비회원: 5만원/년(부가세 포함)
- 납부처: 농협 088-01-005531 대한양돈협회
- 문의처: 본회 지도부(담당 이은형) 02)571-9751
 - * 신청자 접수 완료 당일부턴 신청자 휴대폰에 알림
 - * 본회 지부 회원 전체 등록시 전체 수납 요금액의 10% 할인, 지부별 특별안내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